

빠알리 삼장의 스리랑카어 번역에 대한 연구 —붓다자얀띠(Buddha-Jayanti) 역경사업을 중심으로— 정준영*

I 들어가는 말. II 붓다자얀띠 경전의 번역과 구성.

III 출판과 판매. IV 마치는 말.

요약문 [주요어: 부처님 성년기념 역경사업, 부처님의 탄생, 스리랑카, 싱할리, 빠알리삼장, 번역]

본 연구는 부처님 탄생 2500주년 기념으로 1956년에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빠알리 삼장의 싱할리번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본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붓다자얀띠의 번역과 과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 이후의 평가에 대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번역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당시 가장 저명하고 박식한 24명의 승려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빠알리 삼장의 번역을 진행해 나아갔다. 편집위원들의 개별적인 번역작업은 편집위원회, 편집대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고 편집심의회에 결정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스리랑카의 번역실태를 통한 번역과정의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빠알리 경전의 역경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을 보완하고, 특징을 살려 보다 체계적인 번역과정을 마련하는데 바람직한 지평이 될 것이다.

I. 들어가는 말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서 스리랑카, 미얀마 그리고 태국은 남방 상좌부(Theravāda)불교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세 나라는 佛法의 전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불교와 불교문화 등에

*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saddha@hanmail.net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들 불교국가들 사이에서 스리랑카는 상좌부 불교전개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약 230년이 지나, 인도의 아쇼카(Ashoka)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의 아들 마힌다(Mahinda) 장로를 스리랑카에 보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Dipavamsa(島史)와 Mahāvamsa(大史)는 인도를 통한 스리랑카 불교전래의 역사적 전통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¹⁾ 스리랑카의 불교역사는 2,500여 년의 불교 역사 중에 2,300여 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리랑카의 역사가 곧 오늘날 상좌부불교의 역사와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빠알리(Pali)삼장(三藏)이 문자로 처음기록된 것은 스리랑카의 4차 결집을 통해서이다. 스리랑카 승려들은 결집을 통하여 스리랑카의 문자인 싱할리를 빌려 부처님 말씀을 폐엽경에 기록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각각의 언어로 번역된 빠알리 경전을 만날 수 있다. 빠알리 삼장 전체의 역사적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의 학장인 올리버 아베나야께(Prof. Oliver Abeynayake)는 스리랑카의 역사적 흐름과 편집자들에 의해 경전에 변화가 생겼으며 현재의 빠알리 삼장은 초기의 것과 다르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고 있다.²⁾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현재 남아있는 빠알리 경전과 주석서를 바탕으로 연구된 것이다. 따라서 빠알리 삼장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 역시 현재의 빠알리 삼장과 발견되는 필사본 일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부처님 성년기념 역경사업으로 진행된 ‘붓다자얀띠(Buddha-Jayanti, BJT)’ 빠알리 삼장 번역시리즈는 스리랑카에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폐엽경을 기준으로 번역되었다.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어로 남은 빠알리삼장은 스리랑카의 문자를

1) Oldenberg(2001) p.117, Geiger(1986) p.88, Gombrich(1988) p.148.

2) Abeynayake(2000) pp.163-183

빌어 기록한 것이기에 일반 대중을 위한 새로운 번역이 필요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이 과정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하나는 붓다자얀띠 경전의 번역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번역을 위한 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최고 편집심의회 설립과 구성 그리고 이들을 통한 번역작업의 진행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붓다자얀띠 경전의 출판과 판매에 관한 것으로 판매와 가격, 붓다자얀띠의 향후계획, 번역서에 대한 대중의 반응 그리고 이들 외에 진행되는 번역작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리랑카 내에서 일반대중을 위해 시작된 빠알리 삼장의 스리랑카어 번역과 그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붓다자얀띠 빠알리삼장 번역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하여 빠알리삼장 번역작업에 관계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³⁾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붓다자얀띠 빠알리삼장 번역물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가 아니라 현지에서 조사한 번역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실태파악에 가깝다. 이러한 역경과정에 대한 연구는 스리랑카의 빠알리 경전번역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재고함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초기경전의 번역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스리랑카 콜롬보대학교(University of Colombo)의 아상가(Prof. Asanga Tilakaratne)교수와 *Encyclopaedia of Buddhism*의 편집자인 사나뜨(Sanath Nanayakkara) 선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팔리문헌연구소(www.ripl.or.kr) 마성스님의 연구물들 역시 스리랑카의 불교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II. 붓다자안띠 경전의 번역과 구성

기원전 1세기 스리랑카의 4차 결집을 통하여 문자로 남은 것은 빠알리 삼장이지만 불교가 스리랑카에 전래될 때에는 주석서(atthakathā)도 함께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에 소개된 이후 승려들에 의하여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빠알리 삼장의 경우는 빠알리 자체로 전승되었고 주석서는 불교를 배우는 승려들을 위해 싱할리어로 번역되어 전승되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빠알리 주석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점차 사라졌고, 현재는 싱할리 번역서조차 그 원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참고하는 빠알리 주석서는 싱할리로 옮긴 주석서(*Sinhala-atthakathā*)를 다시 빠알리어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싱할리 주석서에서 빠알리 주석서로의 재번역 작업은 기원후 5세기경 대주석가인 붓다고사(Buddhaghosa)와 담마빨라(Dhammapala)에 의해 이행되었다. 주석서의 전통과 다르게 경율론의 삼장은 빠알리어로 보존되어 왔다.

2300여 년의 빠알리 불교역사를 지닌 스리랑카의 경우, 오히려 빠알리 삼장을 일반대중을 위해 번역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고려

4) 구전의 전통이 있었기에 싱할리본 주석문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은 어렵다. 하지만, 이 주석서의 이름을 언급하는 문헌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스리랑카에서 편집된 대표적인 주석서 판본으로는 이른바 Simon Hewavi-tarne Bequest 시리즈판(SHB)(1917~1957)이 있다. SHB는 Anagarika Dhammapala의 가족들이 기금을 만들어 빠알리 삼장의 주석서만을 싱할리로 엮은 것이다. Malalasekara가 DPPN(*Dictionary of Pali Proper Names*)을 저작할 당시에는 PTS판 주석서가 나오지 않아 SHB를 인용했다. SHB는 현재 Khankavitarana(Patimokkha의 부분)가 싱할리로 완역되었고 Kapila Abeyvamsa 교수에 의해 *Manorathapurani*(Anguttaranikaya주석서)가 번역 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 켈러니아 불교대학원(PGIPBS)의 싱할리(Ven. Sinhala)스님에 의해 *Atthasalini*가 싱할리로 완역되었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빠알리어에 능통한 승려들에게 경전의 번역은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반불자들 역시 빠알리어를 공부한 승려들이 빠알리 경전을 읽고 해석해주는 전통적 방식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불자들은 빠알리 삼장은 성스러운 것으로 일반대중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사찰의 교육시설을 통해 구두로 지도받는 전통에 만족해왔다. 승려들은 일반신도들에게 설법을 통하여 빠알리 경전을 전하고, 경전을 필요로 할 때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러한 스리랑카의 전통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일반적인 전법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승려들은 『담마빠다(法句經, *Dhammapada*)』나 다른 경전들로부터 빠알리 시구(*gāthā*)를 발췌하여 암송하고, 그 의미를 신도들에게 스리랑카어로 전달한다. 물론 스스로 빠알리어를 배우고자 하는 재가자들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배울 수도 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몇몇 빠알리 경전인 『와살라 숫따(*Vasala sutta*)』, 『마하망갈라 숫따(*Mahamangala sutta*)』, 『시갈로와다 숫따(*Sigālovāda sutta*)』 등은 싱할리로 번역되고 교육되었다.⁵⁾ 하지만, 이러한 번역물은 내용적인 면에 있어 경전 전체에 대한 완역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축약된 번역에 불과했고,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의역되었을 뿐, 그 이외의 특별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싱할리어로 번역된 경전의 대부분은 정확성에 대해 크게 신뢰하기 어려웠고 실용성 역시 높지는 않았다. 이처럼 스리랑카는 싱할리 삼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에 젖어 역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1956년, 스리랑카는 인도·미얀마·태국 등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부처님의 탄생 2,500주년 행사를 치루기로 결정하였다.⁶⁾

5) *Suttanipāta*와 *Dīgha-Nikāya*. vol. III의 일부

6) 붓다의 출생과 [2009년을 기준으로 2553년 전] 열반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다. 하지메 나카무라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 고프리트지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스굽타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부처님의 탄생일을 정의하고 불교가 존재한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스리랑카 정부역시 이 의미 있는 해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고, 결국 ‘붓다자안띠(Buddha-Jayanti, 부처님 聖年)’라고 부르는 위대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정부주도하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빠알리 삼장을 싱할리로 완역·출판하는 것과 불교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Buddhism)을 영문으로 제작하는 것이다.⁷⁾ 빠알리 삼장의 번역계획은 1954년 최초로 논의되어 ‘Buddha Jayanti Tripitaka Granthamala(BJT)’라는 공식이름으로 준비되었고 2년 후인 1956년, ‘부처님 聖年’의 ‘부처님 오신 날(Vesak day)⁸⁾’을 기념으로 국가사업으로 공식 선포되었다.

1. 특별위원회(Special Board)의 설립

‘붓다자안띠’와 관련된 모든 역경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효력을 지니는 특별위원회가 필요했다. 이에 1954년 스리랑카 국회는 역경사업을 공식적인 정부사업으로 인정하고,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작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스리랑카 불자회의(Lanka Bauddha Mandalaya - Sri Lanka Buddhist Council)’라고 불렸으며 빠알리 삼장의 싱할리 번역

기원전 560년에 붓다가 룸비니에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 Nakamura(1996) p.12, Gombrich(1984) p.11, Dasgupta(1992) p.81.

7) 빠알리 경전의 싱할리번역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불교대백과사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2009 현재 vol.VII ~Vimānavatthu까지 완료] 빠알리 삼장의 번역은 콜롬보에 최초의 사무실을 만들었고 불교대백과사전은 페러데니아에 사무실을 만들었다. 참고) Malalasekera(1997) p.iii.

8) Vaiśākha(April-May) day : 부처님 오신 날

과 출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이 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역경작업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했고, 위원회 역시 다양한 부처의 소속으로 옮겨가며 진행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처음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소속을 시작으로 문화부(Ministry of Cultural Affairs)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순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완역이후 전질의 출판시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불교부(Ministry of Buddha Sāsana)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처럼 빠알리 삼장의 역경작업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할 하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각각의 부처를 주도하는 장관에 의해 그 책임이 전이되었다.

2. 편집위원회(Tripitaka Translation Editorial Board)의 선정

‘스리랑카 불자회의’라는 빠알리 삼장번역 특별위원회의 조정과 후원 아래, 빠알리 삼장의 직접적인 번역과 출판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와 그 구성원이 선정되었다. 이는 ‘삼장의 번역과 편집위원회(The Tipitaka Translation and Editorial Board)’라는 이름으로 24명의 위원이 중심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편집위원회의 구성, 구분, 편집위원, 지도부, 역자 그리고 편집지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었다. 편집위원회는 대표와 편집장이 주축이 되었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고문, 편집운영, 간사 등은 편집위원회 설립시기에는 없었던 역할로 역경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번역을 직접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는 이 시기에 가장 저명하고 박식한 승려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사원교육을 이수한 자들로, 빠알리 삼장과 주석서에 정통하고 아시아 언어에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이들 중에 몇몇은 미얀마에서 실시한 6차

결집에 참여하기도 했다. 빠알리 삼장의 번역을 주도한 편집위원회는 모두 24명의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웨리위띠에 소라따 나야까 테라 (Ven. Velivitiye Sorata Nāyaka Thera)
2. 빠라와헤라 와지라냐나 나야까 테라 (Ven. Paravāhera vajirañāṇa Nāyaka Thera)
3. 케셀와뚜고다 라타나조띠 나야까 테라 (Ven. Keselwathugoda Rathanajothi Nāyaka Thera)
4. 발랑고다 아난다마이뜨레야 나야까 테라 (Ven. Balangoda Ananda Maitreya Nāyaka Thera)
5. 할다두와나 담마락키타 테라 (Ven. Haldaduwana Dhammarakkhitha Thera)
6. 암바랑고다 담마쿠살라 테라 (Ven. Ambalangoda Dhammakusala Thera)
7. 카다와뚜와 시리니와사 나야까 테라 (Ven. Kadawadduwa Siriniwasa Nāyaka Thera)
8. 빠란노루웨 위마라담마 나야까 테라 (Ven. Palannoruwe Wimala dhamma Nāyaka Thera)
9. 데히가스페 뻬나사라 나야까 테라 (Ven. Dehigaspe Pannasala Nāyaka Thera)
10. 웨라고다 아마라모리 나야까 테라 (Ven. Veragoda Amaramoli Nāyaka Thera)
11. 빠라와헤라 뻬나난다 테라 (Ven. Parawahera Pannananda Thera)
12. 가라가마 사라나까라 테라 (Ven. Galagama Saranakara Thera)
13. 헤고다 담민다 나야까 테라 (Ven. Hegoda Dhamminda Nāyaka Thera)
14. 까뚜꾸룬데 데와난다 나야까 테라 (Ven. Katukurunde Devananda Nāyaka Thera)
15. 라부가마 랑카난다 테라 (Ven. Labugama Lankānanda Thera)
16. 까다고다 냐나로까 테라 (Ven. Kadāgoda Ñāṇaloka Thera)
17. 아꾸라띠예 아마라완사 나야까 테라 (Ven. Akuratiye Amaravansa)

Nāyaka Thera)

18. 미리췌 구나시리 테라 (Ven. Mirisse Gunasiri Thera)

19. 까라함빠띠고다 수마나사라 테라 (Ven.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20. 와투게다라 아마르시하 테라 (Ven. Wathugedara Amarseeha Thera)

21. 이두루웨 옷따라난다 테라 (Ven. Iduruve Uttaranada Thera)

22. 마디헤 뻠나시하 마하 나야까 테라 (Ven. Madihe Pannaseeha

Maha Nāyaka Thera)

23. 코스고다 담마완사 테라 (Ven. Kosgoda Dhammavansa Thera)

24. 따라레 담마난다 테라 (Ven. Talale Dhammananda Thera)

이 구성원들의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ddhist Meditation in Theory and Practice’⁹⁾의 저자인 캠브리지 출신의 학승 빠라와헤라 와지라냐나 나야까 테라(Ven. Dr. Paravāhera v ajirañāna Nāyaka Thera), Vidyodaya Pirivene¹⁰⁾의 대표이자 후에 Vidyodaya대학교(現 Sri Jayewardenepura University)의 부총장을 역임한 웨리위띠에 소라따 나야까 테라(Ven. Velivitiye Sor-ata Nāyaka Thera), 남부 스리랑카 비구승단 대표인 까다고다 나나로까 테라(Ven. Pandit Kadāgoda Ñāṇaloka), Vidyodaya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고 후에 Ruhuna대학교의 총장을 맡은 빠라와헤라 뻠나난다 테라(Ven. Dr. Pandit Paravahera Paññānanda), Vidyodaya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한 따라레 담마난다 테라(Ven. pandit Talalle Dhammānanda), 그리고 악가마하뻠디따¹¹⁾ 발란고다 아난다마이뜨레야 나야까 테라(Aggamahāpandita Ven. Balan-goda Ananda Maitreya Nāyaka Thera)¹²⁾와 라부가마 랑카난다 테라(Ven. Labugama Lankānanda Thera) 등 당대 가장 박식한

9) Vajirañāna(1975) 2nd edition.

10) Monastic Education Centre로 강원과 유사한 출가자들의 학교이다.

11) Highest Great Learned(wise) Man : 미얀마에서 최상의 지혜를 가진 승려에게 붙여주는 호칭이다.

12) ‘Nine Special Qualities of the Buddha and Other Essays’(1995. World Buddhist Foundation)를 집필하는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최고 편집심의회(Supreme Editorial Council)

또한 위에서 설명한 편집위원회 24명의 위원들로부터 5명을 선별하여 ‘최고 편집심의회(Supreme Editorial Board)’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경전번역에 대한 최고의 결정기관으로 편집위원회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웨리 위띠에 소라따 나야까 테라, 빠라와헤라 와지라나나 나야까 테라, 발란고다 아난다마이뜨레야 나야까 테라, 라부가마 랑카난다 테라, 그리고 까다고다 나나로까 테라이다. 이들 중, 라부가마 랑카난다 테라는 시작해인 1956년부터 완역이 마무리된 1989년까지 이 위원회의 최고 편집심의회 대표이면서 편집대표를 맡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물의 편집책임을 맡으면서도 직접 경전 9권을 싱할리로 번역하는 역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이행했다.

4. 번역작업의 진행

최초의 번역은 각각의 승려들이 개별적으로 [경전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위원들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역자를 선정하고 분량을 할당하였다. 주로 24명의 편집위원들이 분량을 할당하여 역경을 진행해 나아갔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의 역자들 역시 신중히 선별하여 분량을 할당하였다. 경전의 번역과 편집을 맡은 승려들은 필사본을 통하여 빠알리어를 확인하고 이를 싱할리로 번역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개별적으로 맡은 경전이 완역되면 번역물은 편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작업물을 숙독하고 문제여부에 따라 편집대표에게 전달한다. 편집대표는 다른 편집위원들이 번역물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편집대표의 확인을 거친 번역물은 평가와 제언을 위한 마지막 최고기관인 ‘최고 편집심의회’에 보고된다. 그리고 이곳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판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 분량설정 → 개별번역작업 → 편집위원회, 편집대표 심의
→ 최고 편집심의회 → 출판

이와 같은 역경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스리랑카불자회의에 소속된 행정직원, 사무원, 그리고 일부 도우미들만이 전임으로 일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번역과 편집을 담당한 모든 승려들 즉, 편집위원회의 모든 임원들은 전임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역자를 포함한 편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격주간의 모임을 가졌고, 상황에 따라 월간모임과 필요에 의한 모임을 갖고 역경작업을 진행했다. 모든 임원들과 번역자들에게는 약간의 보수와 교통비가 지불되었는데, 이들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업의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따라서 분담된 경전의 번역은 고스란히 그 부분을 맡은 승려 개인의 부담이 되는 구조를 지녔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번역작업을 맡은 승려들은 보수를 위해 작업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89년의 완역까지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역경작업의 완성은 불교와 국가를 위한 편집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번역 및 편집비는 연구모임이 있는 날마다 조금씩 지급되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맡은 분량의 번역비는 최고 250루페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 액수를 현재 루페의 가치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이 당시 1갤론(3.785ℓ)의 휘발유가 2루페

50센트 정도였고(1리터 0.66루삐), 2009년 4월 현재 1리터의 휘발유는 120루삐이므로(1 갤런, 454루삐) 그 당시 250루삐는 현재 45,400루삐와 비교될 수 있다. 대략 한화로 환산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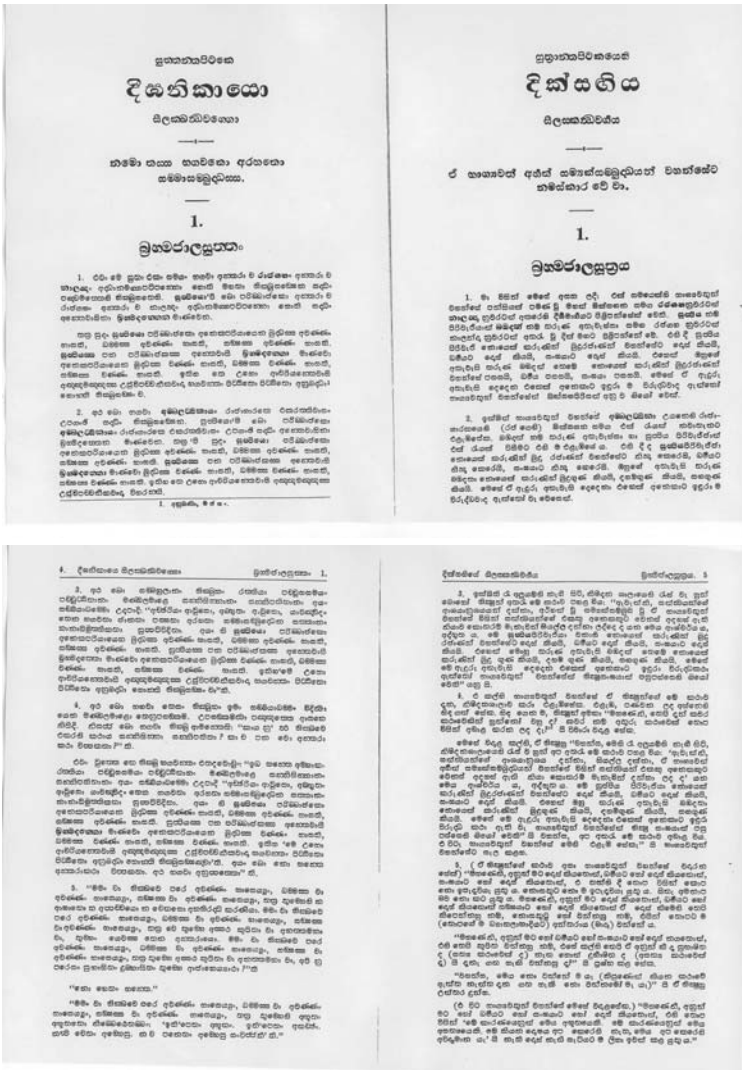
번역과 편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최고 편집심의회 감독하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빠알리 삼장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빠알리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 싱할리 모두에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번역은 개별 작업 이후에 특별한 수정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이 역자들 각자의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번역물이 완성되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번역의 속도는 역자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분위기와 각각의 능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후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역자들에게 적절하고 규칙적인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한 시간구조로 진행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승려들이었기에 각각의 스케줄이 바쁘고 정부도 이들을 쉽게 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역경과정에는 우리와 비교되지 못할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빠알리 삼장의 싱할리 번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사항은 전통적으로 빠알리어를 습득한 뛰어난 승려들의 번역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번역용어 선정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어인 싱할리는 빠알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빠알리 용어는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빈냐(abhiñña, 神通), 님바나(Nibbana, 涅槃), 위따까(vitakka, 尋), 위짜라(vicāra, 伺), 삐띠(pīti, 喜), 수카(sukha, 樂), 둑카(dukkha, 苦) 등 대부분의 불교용어들은 번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써도 싱할리어로 의미가 일부 통한다. 국내의 번역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

말 번역용어의 선정이라면 스리랑카의 역경사업은 우리의 사정과 전혀 다른 유리한 언어적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싱할리어로 전환될 수 있는 적절한 번역용어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붓다자안띠 삼장 시리즈는 후에 일반대중의 평가에 의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III. 출판과 판매

붓다자안띠의 출판은 전집이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번역이 완성되는 대로 경전별로 출판되었다. 무엇보다 붓다자안띠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든 출판물이 빠알리 경전과 싱할리 번역을 함께 담고 있어 독자가 빠알리어와 번역된 싱할리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자안띠판을 펼치면 한쪽 면에는 빠알리 원전이, 마주보는 다른 한쪽에는 싱할리 번역이 담겨있다. 그리고 가능한 원전과 번역의 행간까지 일치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각각의 경전에는 편집자의 설명과 내용목차가 부가되었다. 이들은 크게 경율론 삼장으로 구분되었고 각각의 장과 부에는 개별적인 소개를 더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Katthāvatthu*(論事)와 같이 중요한 경전은 별도의 소개부분을 넣었다. 붓다자안띠 최초의 번역은 율장(Vinaya-Piṭaka, 律藏)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왼쪽에는 빠알리어 오른쪽에는 싱할리로 되어있다.

번역계획이 수립된 후 3년이 지난 1959년 웨라고다 아마라모리 나야카 테라(Ven. Veragoda Amaramoli Nayaka Thera)에 의해 Parāṅkapaṇī(波羅夷法)가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그 이후 1989년까

지 완성된 붓다자안띠판의 번역물은 총 59권이고 이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현재 57권으로 합본)

I. Vinaya-Piṭaka, 律藏 (총 9권)

01. Pārājika 바라이

역자 : Ven. Pandita Veragoda Amaramoli Thera. 출판 : 1959 (불기2503)

02. (1) Pācittiya 승가계율 I, 파일제

역자 : Ven. Vidyāvisārada Pandita Induruwe Uttarānanda Mahānāyaka Thera 출판 : 1981 (2524)

02. (2) Pācittiya 승가계율 II, 파일제

역자 : 상동, 출판 : 1981 (2524)

03. 승가생활 I, Mahā-vagga, 小品 1권

역자 : Ven. Pandita Ambalamgoda Dhammakusala Thera. 출판 : 1957 (2501)

04. 승가생활 I, Mahā-vagga, 小品 2권

역자 : Ven. Pandita Ambalamgoda Dhammakusala Thera. 출판 : 1957 (2501)

05 (1). 승가생활 II, Cūlavagga, 小品 1권

역자 : Ven. Haldanduvana Dhammarakkhita. 출판 : 1977 (2520)

05 (2). 승가생활 II, Cūlavagga, 小品 2권

역자 : Ven. Aggamaha Pandita Balangoda Anandamaitreya Mahanayaka Thera와 Ven. Pandit Uduwe Janananda Thera. 출판 : 1983 (2525)

06 (1). 부록, Parivāra, 附隨 1권

역자 : Ven. Keselvatugoda Patanajoti Nayaka Thera. 출판 : 1977 (2520)

06 (2). 부록, Parivāra, 附隨 2권

역자 : Ven. Keselvatugoda Patanajoti Nayaka Thera. 출판 : 1979 (2522)

II. Sutta-Piṭaka, 經藏 (총 35권)

07. 긴 가르침, Dīgha-Nikāya, 長部 1권

역자 : Ven. Aggamaha Pandita Balangoda Anandamaitreya Maha

Nayaka Thera. 출판 : 1962 (2505)

08. 긴 가르침, Dīgha-Nikāya, 長部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76 (2519)

09. 긴 가르침, Dīgha-Nikāya, 長部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76 (2519)

10. 중간 길이 가르침, Majjhima-Nikāya, 中部 1권

역자 : Majjhima-Nikāya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64 (2508)

11. 중간 길이 가르침, Majjhima-Nikāya, 中部 2권

역자 : Ven. Pandita Kodagoda Ñāṇalika Thera와 Ven.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출판 : 1973 (2516)

12. 중간 길이 가르침, Majjhima-Nikāya, 中部 3권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Anunāyaka Thera와 Ven. Pandit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출판 : 1974(2517)

13.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1권

역자 : Samyutta-Nikāya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60 (2503)

14.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62 (2505)

15.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3 (2526)

16.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4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1 (2524)

17 (1).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5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2 (2525)

17 (2). 함께 묶은 가르침, Samyutta-Nikāya, 相應部 6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2 (2525)

18.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Aṅguttara-Nikāya, 增支部 1권

역자 : Aṅguttara-Nikāya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60 (2526)

19.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Aṅguttara-Nikāya, 增支部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62 (2526)

20.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Aṅguttara-Nikāya, 增支部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68 (2512)

21.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Aṅguttara-Nikāya, 增支部 4권

역자 : 상동. 출판 : 1970 (2513)

22.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Aṅguttara-Nikāya, 增支部 5권

- 역자 : 상동. 출판 : 1977 (2520)
23. 하나씩 더하는 가르침, *Āṅguttara-Nikāya*, 增支部 6권
역자 : 상동. 출판 : 1977 (2520)
24. 짧은 외율 거리, *Khuddaka Pāṭha*, 小誦經, 가르침의 소리, *Dhammapada*, 法句經, 기쁨에 찬 말씀, *Udāna*, 感興語, 이렇게 하신 말씀, *Itivuttaka*, 如是語
역자 :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60 (2504)
25. 가르침의 모음, *Suttanipāṭa*, 經集
역자 : Ven. Pandita Paravahera Siripaṇṇānanda. 출판 : 1977 (2520)
26. 27. 하늘나라 이야기, *Vimānavatthu*, 天宮事, 배고픈 귀신 이야기, *Petavatthu*, 餓鬼事
역자 :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82 (2524)
- 28 29. 장로의 시, *Theragāthā*, 長老偈, 장로니의 시, *Therīgāthā*, 長老尼偈
역자 : Ven. Pandita Karahampitigoda Sumanasāra Thera. 출판 : 1972 (2514)
30. 부처님 전생이야기, *Jātaka*, 本生談 1권
역자 : Ven. Siri Madihe Pañṇāsīha Mahanayaka Thera 출판 : 1983 (2526)
31. 부처님 전생이야기, *Jātaka*, 本生談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4 (2526)
32. 부처님 전생이야기, *Jātaka*, 本生談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6 (2529)
33. 가르침의 큰 설명, *Mahā Niddesa*, 大義釋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Mahanayaka Thera
출판 : 1961 (B.E. 2505)
34. 가르침의 작은 설명, *Cūla Niddesa*, 小義釋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Anunāyaka Thera와 Ven. Pandit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출판 : 1976(2519)
- 35 (1). 분석적 통찰의 길, *Paṭisambhidā Magga*, 無碍解道 1권
역자 : Anunayaka Thera와 Pandit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출판 : 1971(2515)
- 35 (2). 분석적 통찰의 길, *Paṭisambhidā Magga*, 無碍解道 2권
역자 : Anunayaka Thera와 Pandit Karahampitigoda Sumanasara

Thera. 출판 : 1971(2515)

36. 성자 이야기, Apadāna, 譬喻經 1권

역자 : Ven. Pandita Talalle Dhammananda. 출판 : 1961 (2505)

37. 성자 이야기, Apadāna, 譬喻經 2권-1

역자 : Ven. Pandita Talalle Dhammananda. 출판 : 1977 (2520)

37 (2). 성자 이야기, Apadāna, 譬喻經 2권

역자 : Anunayaka Thera와 Ven. Pandit Wendaruwe Siri Anomad-
-assi Thera. 출판 : 1983 (2526)

38. 부처님 계보, Buddhavaṃsa, 佛種姓經, 수행 이야기, Cariyā Piṭaka,
所行藏經

역자 : 빠알리삼장 편집위원회. 출판 : 1977 (2520)

39. 말씀풀이의 길잡이, Nettippakaraṇa, 指導論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Mahanayaka Thera
출판 : 1980 (B.E. 2523)

40. 말씀풀이의 잣대, Peṭakopadesa, 三藏論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Mahanayaka Thera
출판 : 1989 (B.E. 2532)

III. Abhidhamma-Piṭaka, 論藏 (총 13권)

41. 법의 모음, Dhammasaṅgani, 法集論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Thera와 Ven. Karaha
mpitigoda Sumanasāra Thera. 출판 : 1973 (B.E. 2515)

42. 법의 분석, Vibhaṅga, 分別論 1권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Thera와 Ven. Karaha
mpitigoda Sumanasāra Thera. 출판 : 1975 (B.E. 2518)

43. 법의 분석, Vibhaṅga, 分別論 2권

역자 : Ven. Pandita Labugama Lankananda Thera와 Ven. Karaha
mpitigoda Sumanasāra Thera. 출판 : 1975 (B.E. 2518)

44. 논의 거리, Kathāvatthu, 論事 1권

역자 : Ven. Pandita Kodagoda Ñāṇaloka Thera. 출판 : 1967 (2511)

45. 논의 거리, Kathāvatthu, 論事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68 (2512)

46. 논의 거리, Kathāvatthu, 論事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69 (2511)

47. 요소논의, Dhātukathā, 界論,
 역자 : Ven. Pandita Nuwaraeliye Senānanda Nayaka Thera
 인간유형해설, Puggalapaññatti, 人施設論
 역자 : Ven. Abanwelle Sri Dammānanda Anunayake Thera. 출판
 : 1976 (2519)
48. 짝을 이룬 해설, Yamaka, 雙論 1권
 역자 : Ven. Pandit Medauryangoda Wimalakitti Thera, 외. 출판 : 1985
 (2528)
- 49 (1). 짝을 이룬 해설, Yamaka, 雙論 2권-1
 역자 : Ven. Pandit Karahampitigoda Sri Dhammakhandha Rewata
 Sumanasara Thera. 출판 : 1987 (2530)
- 49 (2). 짝을 이룬 해설, Yamaka, 雙論 2권-2
 역자 : 상동, 출판 : 1988 (2530)
50. 발생의 조건, Paṭṭhāna, 發趣論 1권
 역자 : Ven. Aggamaha Pandita Balangoda Anandamaitreya Maha
 Nayaka Thera, Ven. Rajakeeya Pandita Sastrapathi Hegoda Kheman
 -anda Thera 그리고 Ven. Rajakeeya Pandita Naramane Buddharakkhita
 Thera. 출판 : 1988 (2531)
- 51 (1). 발생의 조건, Paṭṭhāna, 發趣論 2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9 (2531)
- 51 (2). 발생의 조건, Paṭṭhāna, 發趣論 3권
 역자 : 상동. 출판 : 1989 (2531)

현재 이용 가능한 출판물을 기준으로 율장은 9권, 경장은 35권, 그리고 논장은 13권으로 구성되었다. (9 + 35 + 13 = 57) 이 전질은 'Buddha Jayanti Tripiṭaka Granthamālā(부처님 성년기념 삼장 번역시리즈)'라고 이름 지어졌다. 각각의 권수에는 빠알리 원전과 비교하기 위한 고유번호가 있다. 예를 들어, Majjhima Nikāya(중부)의 3권이면 부처님 성년기념 삼장 번역시리즈 12권(Buddha Jayanti Tripiṭaka Series volume XII)으로 번역시리즈 고유의 번호를 지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개별적인 회사에 의뢰하여 출판을 시작하였고, 점차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출판부에서 모든 출판을 맡았다.

1. 판매와 가격

전질의 출판물을 완성하는 데에는 3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경전의 판매비용도 경제성장률에 따라 변동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매비용도 이윤창출보다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마진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 없이 제작비용과 제작시기마다 판매 가격에 변동을 주었다.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제작비용도 인상되었고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판매를 위한 총판은 정부의 불교부(Ministry of Buddhist Affairs) 휘하에 있는 스리랑카불자회의에서 맡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서점이 따로 있었다. 하지만, 최초에 출판된 번역물이 모두 판매되는데 약 10여년 정도 소요되었다는 후설이 있다.

2. 붓다자얀띠의 향후계획

현재 스리랑카불자회의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붓다자얀띠 삼장 번역에 대한 개정판의 출판이나 수정과 같은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단지 불교부에서 2, 3년에 한 번씩 잘 판매되는 경전에 한하여 재인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불교문화센터(Buddhist Cultural Centre)¹³⁾의 끼라마 위마라조띠(Ven. Kirama Wimalajoti)는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불교부의

13) Buddhist Cultural Centre. 125 Anderson Road. Nedimala. Dehiwala. Sri Lanka. <http://www.buddhistcc.com>

동의를 얻어 붓다자얀띠 삼장 시리즈 전체의 재인쇄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인쇄를 마무리했고 현재 불교문화센터라는 사립단체를 통해서 완전한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재인쇄를 위해 약 7억여 원이 소비되었고, 기존과 공통된 크기로 새롭게 나온 전질 57권(최초 59권)의 가격은 34,000루pee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0만원 정도이다. 이는 PTS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¹⁴⁾

현재 붓다자얀띠에 대한 개정작업은 정부의 차원이 아닌 개인이나 공동체의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붓다넷-독일’¹⁵⁾의 ‘고대 불교경전(Ancient Buddhist Text)’¹⁶⁾ 코너는 ‘불교경전과 연구’라는 창을 통하여 붓다자얀띠(BJT)의 Patimokkha(戒本), Khuddaka Pāṭha(小誦經), Dhammapada(法句經), Udāna(感興語), Itivuttaka(如是語) 등을 편집자의 전문과 함께 하이퍼텍스트(HTML)와 PDF파일로 전산화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중의 일부는 빠알리 원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한다. 사실 붓다자얀띠는 오랜 시간 동안 번역되어왔으며 1989년 완역이후에 별다른 개정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아난다조띠 비구(Ānandaḥoti Bhikkhu)는 붓다자얀띠판의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전의 일부를 전산화하고 영문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2002년 12월 Khuddaka-Nikāya(小部) 경전의 일부교정을 시작으로 2004년 3월 2차, 2004년 11월 3차, 그리고 2005년 12월 4차 개정을 통하여 붓다자얀띠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붓다자얀띠의 교정에만 국한된 작업이 아니라 불교경전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붓다자얀띠 판의 일부만을 소개하

14) PTS에서 판매하는 Pali Canon in Pali (Tipiṭaka), Set 57 books in total Set price는 £1,155.00로 한화로 약 2,260,000원에 해당한다. 참고)

<http://www.palitext.com/>

15) <http://www.buddhanet-de.net/ancient-buddhist-texts/Buddhist-Texts/BT-index.htm>

16) www.ancient-buddhist-texts.net

고 있는 형식이다. 그 밖에 붓다자얀띠에서 사용된 빠알리어는 로마나이즈 표기되어 ‘붓다넷’과 ‘Journal of Buddhist Ethics’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¹⁷⁾

3. 붓다자얀띠판의 반응

붓다자얀띠 싱할리 번역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번역에 사용된 언어가 고전 싱할리라는 것과 붓다고사(Buddhaghosa)의 주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특히 고전 싱할리를 사용하는 것은 붓다자얀띠가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했다. 다시 말해 번역된 언어를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현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70% 정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한다. 사실 번역용어와 문체의 선정은 번역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승려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빠알리 삼장의 번역을 단순한 현대 싱할리를 사용하여 만들어 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일반 대중을 위한 번역용어 선정은 부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빠알리 삼장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신이 희석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번역에 사용된 언어는 싱할리가 맞으나 약 12세기~17세기경에 사찰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전통적 싱할리어이다. 따라서 붓다자얀띠판은 대중적인 이해보다는 학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번역물이 된 것이다. 이는 2500주년 부처님 성년기념 빠알리 삼장의 번역이라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대중과

17) <http://www.buddhanet.net/ftp07.htm>과 <http://jbe.gold.ac.uk/palicanon.html>

18) Tilakaratne(2000) p.42

회통하지 못하고 상징적인 번역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현재 붓다자얀띠판은 대부분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나 작가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한 학자들이 참고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연구자라도 할지라도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TS(Pali Text Society)의 활용에 더 치중하는 편이다. 물론 PTS본의 확인을 위해 붓다자얀띠 삼장시리즈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붓다자얀띠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의 용도로 활용되기보다는 도서관 전시용으로 이용되었다. 각각의 경전들은 대부분 승려들에게 보시하기 위한 보시용품으로 인기였으며, 결국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붓다자얀띠판은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게 되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번역의 정확성을 인정받기에 현재 연구자료로써도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된 번역이 아니기에 학문적 활용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이외의 번역작업

붓다자얀띠 시리즈가 완역된 이듬해인 1990년,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불교부(Ministry of Buddha Sasana)를 새롭게 설립하고 또 다른 역경작업을 시도했다. 새로 생긴 불교부의 첫 번째 작업은 빠알리 삼장을 축약하여 쉬운 생활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다시 학생들로 구성된 새로운 편집위원회가 만들어졌고 5명의 고문과 9명의 편집자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97년 Majjhima-Nikāya(中部)가 출판, 배포되었으며 Samyutta-Nikāya(相應部)도 작업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도 진행 중이다.¹⁹⁾ 하지만 이는 빠알리 삼장의 완역이라기보다 고문과 편집자

의 의도에 의해서 축약하여 정리된 번역서이다. 이외에도 스리랑카의 Buddhist Publication Society는 비구보디(Ven. Bhikkhu Bodhi)와 함께 다양한 경전과 주석서를 영문으로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²⁰⁾ Wheel Publication 역시 각각의 경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다.²¹⁾

IV. 마치는 말

지금까지 빠알리삼장의 스리랑카어 번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며 하나는 붓다자얀띠 경전의 번역과 구성에 대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번역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최고 편집심의회를 설립하고 당시 가장 저명하고 박식한 24명의 승려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빠알리 삼장의 번역을 진행해 나아갔다. 편집위원들의 개별적인 번역작업은 편집위원회, 편집대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9) Asanga Tilakaratne. 2000. p.43

20) Bhikkhu Bodhi는 BPS를 통하여 *Majjhima Nikāya*와 *Saṃyutta Nikāya* 외에도 *Aṅguttara Nikāya* 선집과 *Brahmajāla sutta*, *Sāmaññaphala sutta*, *Mūlapariyāya sutta*, *Mahānidāna sutta*, *Mahā Parinibbāna Sutta* 등, *Dīgha Nikāya*의 일부경전과 주석서를 번역 출판하였다.

21) Wheel 출판사 역시 *Lion's Roar*(Bhikkhu Bodhi. Wheel pub 390/391), *Girimananda sutta*(Nanamoli Bhikkhu, No.177), *Kandaraka sutta*, *Potaliya sutta*(No.79), *Kūṭadanta sutta*(No.120), *Apannaka sutta*, *CulaMalunkya sutta*, *Upali sutta*(No.98/99), *Raṭṭhapāla sutta*(No.110)등의 경전 외에도 *Saṃyutta Nikāya*의 선집(No.183-)과 *Aṅguttara Nikāya* 선집 등 영역된 경전들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BPS와 Wheel의 보다 구체적인 경전번역 출판물 목록은 <http://www.bps.lk/>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고 편집심의회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리랑카 경전번역의 특징은 몇 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다. 먼저 빠알리 경전의 번역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붓다자안띠’라는 의미 있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역경사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부를 위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역자들을 전임연구원으로 고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번역의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빠알리어에 능통한 승려들이 빠알리 삼장을 싱할리로 번역하는데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붓다자안띠판의 특징은 제작과정뿐만 아니라 출판 후의 평가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붓다자안띠판은 총 57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쪽 면에는 빠알리 원전이, 마주보는 다른 한쪽에는 싱할리 번역을 담고 있어 원전과 번역내용이 동시에 확인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형식은 빠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중보다는 학문적 용도라는 좁은 범위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번역에 사용된 용어가 사찰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싱할리어로 일반 재가신도들의 이해를 돕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처님 성년기념 2500주년 행사인 빠알리 삼장의 번역이라는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대중과 회통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번역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스리랑카의 번역과정을 통해 발견된 역경과정의 문제점은 국내에서 빠알리경전을 번역하는데 있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특히 운영과 관계된 정부의 지원이나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번역용어의 선정은 국내의 빠알리어 번역과정에서도 깊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타국의 번역실태를 통한 번역과정의 연구는 그동안 국내 빠알리 경전의 번역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번역과정

에서 쌓여진 번역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바람직한 지평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beynayake, Oliver(2000). 'Sri Lanka's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the Pali Canon' *Buddhism for the New Millennium*, World Buddhist Foundation, London.
- Dasgupta, Surendranath(1992). *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 I, Motilal Banarsidass Pub.
- Geiger, Wilhelm(1986). *The Mahavamsa*, Ceylon Government Information Department. Colombo.
- Gombrich, Richard F.
1984 *The World of Buddhism*, Thames and Hudson. London.
1988 *Theravada Buddhism*,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New York.
- Malalasekera, G, P.(1997) ed. *Encyclopaedia of Buddhism*, The Department of Buddhist Affairs, Ministry of Buddhasasana.
- Nakamura, Hajime(1996). *Indian Buddhism*, Motilal Banarsidass Pub.
- Oldenberg, Hermann(2001). *The Dipavamsa*, Asian Educational Services, New Delhi.
- Paravahera, Vajirañāṇa Mahathera(1975). *Buddhist Meditation in Theory and Practice*, Kuala Lumpur, Malaysia : Buddhist Missionary Society.
- Tilakaratne, Asanga(2000) 'Buddhist Studies in Sri Lanka' *The State of Buddhist Studies in the World*, Center for Buddhist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URL

ABT : Ancient Buddhist Texts Home Page

<http://www.buddhanet-de.net/ancient-buddhist-texts/index.htm>

<http://www.buddhanet-de.net/ancient-buddhist-texts/Buddhist-Texts/BT-index.htm> ; 2009년 4월 28일 검색

BCC : BUDDHIST CULTURAL CENTRE

<http://buddhistcc.net> ; 2009년 4월 28일 검색

BPS :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INC

<http://www.bps.lk> ; 2009년 4월 28일 검색

Buddhanet File Library : Theravada Buddhism

Pali Nikaya [Sri Lanka Buddha Jayanti Tripitaka Series]

<http://www.buddhanet.net/ftp07.htm> ; 2009년 4월 28일 검색

Journal of Buddhist Ethics : Sri Lanka Tripitaka Project(SLTP)

<http://www.buddhistethics.org/palicanon.html> ; 2009년 4월 28일 검색

PTS : THE PALI TEXT SOCIETY HOMEPAGE

<http://www.palitext.com> ; 2009년 4월 28일 검색

팔리문헌연구소

<http://www.ripl.or.kr> ; 2009년 4월 28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a Jayanti Tripitaka Granthamala

Jeong, Jun Yo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Buddha Jayanti translation project and its problem of administration. Buddha Jayanti, the year 1956 which marked the 25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Buddha, was the beginning of new direction in the study and research in Buddhism in Sri Lanka. One of the major projects started as a Buddha Jayanti project is to edit and to translate the Pāli Tripitaka texts into Sinhala. The translation series was called Buddha Jayanti Tripitaka Granthamālā. The Government of Sri Lanka took step to establish special boards for the Buddhist of the island. Venerable Labugama Lankānanda Nākaya Thera was chief editor and president of the board from its inception in 1956 to its completion in 1989. And twenty-four renowned Buddhist monks were selected to delegate this project. The first translation was Pārājikapāli edited and translated by the Venerable Veragada Amaramoli in 1959. In addition to supervising and editing the translations, he translated nine books himself into Sinhala. The text has been collated with several ancient manuscripts and with the edition of Myanmar edition. One of the roles of the translation was to produce a Sinhala edition of the Tripitaka for Sri Lanka Buddhist. However, the style of the translation is archaic Sinhala and the content always represents commentari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ranslation

properly should focus on the understanding of general public.

Key words : Buddha Jayanti Tripitaka Granthamala(BJT), Sri Lanka, Sinhalese, Pāli Ti-ṭṭaka, Translation,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Buddha

투고 일자 : 2009년 4월 30일

심사 기간 : 2009년 5월 1일~5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12일